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서울교회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주여,  
주를 위하여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큰 은총(恩寵)을 감사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한번 더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나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자복하고 비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公義)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城)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청빈(淸貧)한 거지(乞人)이로소이다.  
작은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함이니이다.

주 성령님여,  
주의 성(城)과 주의 백성에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언약의 말씀 믿고  
주 자신을 위하여 엎드려 비옵나니  
병들어 신음하는 몸 되신 서울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 조국을 새롭도록 소생(蘇生)케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비옵나이다. 아멘.

원로목사 이종윤

\* 바벨론포로로 끌려 간 자기백성의 해방을 기원한 다니엘처럼, 모든 서울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애끓는 심정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 "열렸다 하늘문이!"

## 오늘은 교회설립 제 25주년 기념 주일

오늘은 서울교회 설립 제 25주년 기념주일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듯이, 서울교회는 오늘날 교회갱신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항상 개혁되는 교회(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웃의 등대 되고, 민족의 구원선이 되며, 세상의 나

침반이 되는 것이 서울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단지 또 하나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울교회 설립 정신이다.

교회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이대에 서울교회의 설립 정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주일이 되길 바란다.

## 호산나대학, 개교10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11월 17일 발달장애인 전문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호산나대학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2005년 서울교회에서 시작해 2010년 이곳 가평으로의 학교이전과 오늘의 호산나가 있기까지 기도속에 호산나를 기억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린다."라고 전했고 "앞으로 호산나대학은

이번 기념식은 감사예배, 학교 연혁보고, 영상시청, 장기근속 직원 포상, 10주년사, 학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이동기부학장은 10주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의 비전으로 설립된 호산나대학이

발달장애인의 노인케어특성화대학, 취업사관학교를 목표로 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1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 제자 됨으로 부름 II

#### 1.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엇인가?

##### ① 순종하라는 것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은 명령형이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물과 배 그리고 세관의 자리나 그들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순종 없는 기독교는 없다. 순종 없이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없다.

##### ② 회개하라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는 마태가 알려진 죄인임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5:32)라고 강조해 말씀하셨다. 회개하라는 요구는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있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와 교제가 회복이 된다. 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 ③ 항복하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 멩에를 메는 것이다. 멩에는 복종과 정복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복종(Submit)은 Latin어 Sub(=under) + mitt, mittere(=to put, place)

그러므로 복종이란 다른 사람의 권위아래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정복(Subject)은 Latin어 Sub(=under) + iacto, iactare (=cast, throw)

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던지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곧 예수께 복종하는 자라는 것이다. 예수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정복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항복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 ④ 헌신하라

그리스도께 헌신 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신이 없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빛나는 것이거나 그로부터 변절자(배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를 따름이 없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따르는 일에 실패한다는 말은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되지 못한 사람은 거짓복음에 또는 헛된 것에 헌신 되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에서 헌신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헌신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며, 가증한 것이다. 헌신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 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평생토록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헌신하는 것이다. 면류관을 받아 쓸 때까지 헌신하는 것이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하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0) 하셨다. 끝까지 헌신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다.

##### 맺는 말

17C 말 프랑스 귀연(Jeanne Guyon)부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깊이를 체험하면서'라는 책을 출판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샘물로 나오라 물도 없는 샘을 파느라고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이 배고프다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찾지 말고 당신을 풍족히 채울 그 분에게로 나아오라. 가난하거든 나아오라 괴롭거든 나아오라 참혹한 고통의 짐을 지고 있다면, 와서, 위로를 받아라. 병들어 의원이 필요하거든 나아오라. 네가 가진 병 때문에 주저하지 마라. 당신의 주께 나와 그에게 네 모든 병을 보여라. 고침을 받을 것이니 나아오라. 나아오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당신께 나와 당신의 제자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부름 받는 것이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야 한다. 당신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다음 주 계속)

# 당회개회를 거듭 촉구한다

##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서울교회 당회가 지난 9월 정기 당회가 부분 파행된 이후 10월 정기 당회에 이어 11월 정기당회에서는 한건의 안건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회 서기로서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며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인 서울교회**는 총회 헌법과 우리교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당회를 구성하여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당회를 개최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참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대립되어 치열한 토론을 오랜 시간 벌이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적절하게 의견이 조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표결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이어 5월 정기당회가 파행되어 속회로 모이기도 하였고 6월 정기당회는 모이기 하루전날 당회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아예 모이지도 못했으며 7월에 이어 8월 정기당회도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며 어렵게 진행되다가 지난 9월 정기당회에서는 당회장이 회의규칙을 무시한 회의진행과 충분하게 토의를 거친 후에도 표결을 하지 않는 회의 진행 때문에 일부 안건을 아예 다루지도 못하였으며, 10월과 11월의 정기당회에서는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당회를 파행시키고 그 후 당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거듭된 당회 소집요구에도 당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처리해야 할 여러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당회장은 11월 정기당회로 모여 개최기도와 성원보고까지 하였으나 **당회를 개최하기 전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당회와 스테반회, 권사회, 제직회의 **심감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는 **당회원들의 동의나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당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시간에 광고를 통하여 우리교회가 25년 동안 해오던 대로 당회장이 단독으로 당회조직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2015년에 갑자기 당회결의를 받으라고 하여 얼떨결에 이에 응했다고 하였으나 그동안의 임명자료는 물론 특히 2012년, 2013년의 당회조직 임명을 위한 당회의안만 보더라도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공동의회와 상관없이 그동안 20년 가까이 성도들의 동의하에 계속 시행되어 왔고 **당회장 역시 이미 규정에 따라 내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수차례 약속까지 하고서도 이제 당회장의 안식년 순서가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말 바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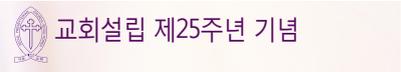
또 담임목사는 목회자세미나, 김치세미나, 사명자대

**당회장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당회를 소집하여 순리와 절차를 따라 당회조직을 새롭게 임명하고 당회의 결의를 받아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 새생명축제 등 교회 대부분의 행사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의 주도로 취소되었다며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어 평화롭던 2015년 여름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광고 하였으나, 김치세미나가 중단된 것은 이미 2015년 여름 이전의 일이며, 목회자세미나는 장로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침례교의 모 목사를 주강사로 내정해 놓고 개최 압박해 서야 당회에 보고하는 바람에 대다수 장로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분을 섭외하여 모시기에 시일이 없어 부득이 이를 취소한 것일 뿐이고 김치세미나는 목회승계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가 계속된 장로들의 대안요구에 외국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현지에 가서 김치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을 보고하여 외국의 비중 있는 지도급 교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들을 각성시켜 그 나라 교계전체를 자국민에 의하여 개혁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김치세미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를 중단한 후 아직까지 박노철 목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계획되었던 여러 행사들도 지금 처럼 성도들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어떤 행사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실무부서의 건의를 당회와 담임목사가 받아들여 취소된 것인데도 이를 전혀 사실과 다르게 마치 일부 장로들의 압력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예배강단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목사는 예배시간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으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인사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다수의 장로들은 배제한 채 철저하게 소수의 지지 장로들을 중심으로 당회조직을 하여 어떻게 당회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 기본은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인 성경말씀이 아닌 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회서기로서 당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당회장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당회를 소집하여 순리와 절차를 따라 당회조직을 새롭게 임명하고 당회의 결의를 받아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교회가 해오던대로이고 당회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회로 속히 모여 산적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어느 길이 더 교회를 위하는 길이이고 더 우리 주님의 뜻에 가까운지 치열하게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悲鳴

비명

신동기 권사 (시인, 12교구)

스산한 새벽  
모질게 내 던져진  
창백한 심장 한 포기

삼자가  
그피에 심겨져  
등뼈가 자라고  
붉은 힘줄 불거져  
장렬히 뻗어 가는  
청년 서울교회여

발 디딘 여기  
우는 사자의 포효(咆哮)  
흠이진 근육 각을 떠  
차디찬 제단위에 올리고

하늘나라  
빠앗긴 청년의 때  
서슬푸른 결기(決起)  
순교자의 비명이어라

비통한 옥광목  
한 필 풀어놓고  
결삭은 눈물  
떨어지는 별을 주위  
시리도록 하얀  
소복을 지어 입고

오늘도  
말씀에 맡긴 서울교회  
스물 다섯 번째  
힘차게 솟아 오르는  
해를 맞는다

하늘이  
당신의 황홀한 땃줄로 채워져  
이 끝에서 저 끝  
마지막 한 획까지  
삼자가로 횡단하여  
일곱 촛대 사이로  
그 길을 간다  
생명의 그길을 간다

스물 다섯 번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사랑 서울교회여!



**장해라 (중등부)**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25년 전, 엄마 아빠가 열 아홉 살이던,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스물 다섯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서울교회가 지금의 성전으로 입당하던 2000년 12월 25일에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고 서울교회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서울교회에 대한 자랑들

이 기억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주일날이 되면, 그 시간을 드러 예배를 드린 것 뿐인데, 세상 어느 곳에 나가 부딪혀도, 다시 설 수 있는 탄탄한 믿음을 공급받은 것도 서울교회였고,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장례 예배를 할 곳도 서울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9시, 지금 이곳 2층 분당 앞자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드리던 가족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런 기쁘고 힘이 되는 기억들로 서울교회에서 다음세대로 자라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위해 자랑만 하다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봅니다. 6월이 오는 것이, 흥해작전이 매년 축제 같아서 편히 기다렸던 저의 지난 날의 모습,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새삼 제 마음의 와닿는 요즘입니다.

아직 부족한 다음세대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제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없는 지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세대로 자라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주님과 같은 마음의 비전을 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 먼저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100% 사람 100%로 되어지는 이 진리 앞에 순

종하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위에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꿈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든 친구들, 주님께 아뢰기만 해도 눈동자같이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친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세대에게도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날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회복되는 부흥이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서 넉넉히 이겨가는 생활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시간이 지나, 지금부터 다시 25년이 지났을 때에는, 서울교회의 50번째 생일을, 우리 친구들이 더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울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 청년 서울교회의 스물다섯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전2020운동**



11월 19일(토)에 있었던 양평 20사단 진중세례식 (사진: 윤명구 집사)

**3사단 진중세례식**

우리 교회 비전2020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주관 3사단 진중세례식이 12월 3일(토) 거행된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7일(주) 섬김의 교회에서 성례식을 집례한다. 28일(월) 나눔과기쁨 주최 『제2회 한국교회강단 회복위한 설교 컨퍼런스(설교클리닉)』 격려사를 한다. 30일(수) 북한구원운동(Save NK)주최 탈북청소년 사진전 축사를 한다. 12월 3일(토) 『사랑의 쌀 운동』 설교와 포골 국제올림픽바타르대학교 이사회 개회설교를 한다.

- 개업 : 1교구 양재현 성도(양춘경 장로 이인숙 권사 아들) 변호사개업 법률사무소 『세상』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 빌립 선교회 (11.27) 리브가전도회 (124)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 제공
- 교회설립감사떡제공 : 제 2편사회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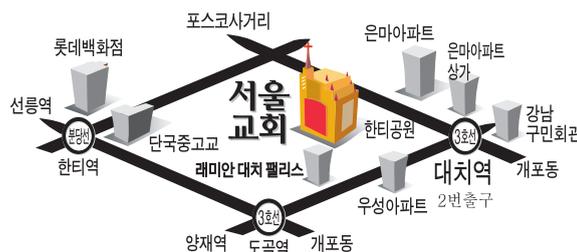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설립 제 25주년을 맞은 서울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3. 3사단 진중세례식(12월 3일)을 통하여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분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분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